



월드컬처오픈 소식

## 베터투게더 워크숍: 세계시민의식 함양

WCO KOREA - 2018. 7. 4. 18:00

URL 복사

+이모티콘 ::

비가 많이 내리던 지난 일요일, 장대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서소문 월드컬처오픈 토킹스푼을 찾아주셨습니다. 7월 1일 뉴아크로폴리스와 함께하는 베터투게더 스쿨 <세계시민의식함양>: 예술을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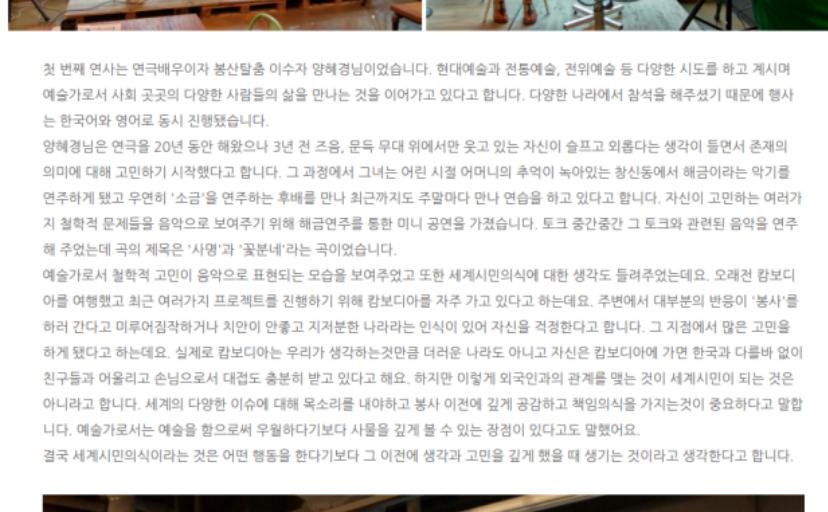
뉴아크로폴리스



뉴아크로폴리스는 1957년, 역사학자이자 철학가인 호르헤 엔겔 리브라(Jorge Ángel Livraga Rizzi 1931-1991)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처음 설립한 실용적인 철학을 배우는 국제단체입니다. 철학, 문화, 봉사활동을 하는 국제적인 NPO 단체로 강의와 세미나, 자원봉사, 문화 활동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탐색하고 드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뉴아크로폴리스는 60여 개국에 존재합니다. 15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출신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뉴아크로폴리스는 모든 국가에서 연속적인 수준으로 배우는 공통적인 연구 프로그램이 있는 철학 학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철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위한 '실천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서소문으로 통합된 월드컬처오픈의 C!here 공간나눔운동 프로젝트 공간인 W스테이지 안쪽에서부터 공간을 사용하여 인연을 맺었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및 철학 전파 프로젝트를 하며 지난 2017년 청주의 옛연초제장에서 열린 BetterTogether 2017에도 참석하여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들이들과 축제를 즐기고 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7월 1일에 진행한 베터투게더스쿨은 <세계시민의식함양>: 예술을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세계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명의 연사의 토크를 통해 시민의식이 예술가의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행사 전 뉴아크로폴리스의 경기발행지 '실용 철학'이 자리마다 놓여있었습니다. 뉴아크로폴리스에 대한 소개와 활동 모습,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뉴아크로폴리스 한국지부를 책임지고 있는 '밀라닛 아다르'와 월드컬처오픈이 행사를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맛비가 물아지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걱정과 달리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철학, 그리고 시민의식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연사는 연극배우이자 봉산탈춤 이수자 양혜경님이었습니다. 현대예술과 전통예술, 전위예술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며 예술가로서 사회 곳곳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행사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양혜경님은 연극을 20년 동안 해왔으나 3년 전 즈음, 문득 무대 위에서만 웃고 있는 자신이 슬프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추억이 녹아있는 창신동에서 해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게 됐고 우연히 '소금'을 연주하는 후배를 만나 최근까지도 주말마다 만나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들을 음악으로 보여주기 위해 해금연주를 통한 미니 공연을 가졌습니다. 토크 중간중간 그 토크와 관련된 음악을 연주해 주었는데 곡의 제목은 '사명'과 '꽃분네'라는 곡이었습니다.

예술가로서 철학적 고민이 음악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생각도 들려주었는데요. 오래전 카보디아를 여행했고 최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카보디아를 자주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대부분의 반응이 '봉사'를 하러 간다고 미루어짐작하거나 치안이 안 좋고 저저분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 자신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 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카보디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러운 나라도 아니고 자신은 카보디아에 가면 한국과 다를 바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손님으로서 대접도 충분히 받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세계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의 다양한 이수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하고 봉사 이전에 깊게 공감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술가로서는 예술을 함으로써 우월하다기보다 사물을 깊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도 말했어요.

결국 세계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 그 이전에 생각과 고민을 깊게 했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간단한 질의응답과 함께 모두가 어우러져 지혜를 나누는 네트워크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념사진 활영도 하고요^^ 철학적 고민이 예술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표출이 되는지, 세계 시민의식이란 무엇이며 예술가들에게 어떤 의미로 생각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피에르 풀랭의 사진전은 상시 전시됩니다. 서소문 월드컬처오픈 오렌지컨테이너 앞 잔디 공간에 전시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 들러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02-6985-8868로 연락주세요.

